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군 복무 시절, 내가 복무하던 부대는 산에 있었다. 출·퇴근자를 위해 부대 차량이 산 아래까지 운행되었다. 그때 도로는 흙으로 된 도로였다. 그래서 여름철 심한 폭우가 쏟아지면 비상이 걸렸다. 폭우가 불어날 물길에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도로는 깊게 파인 골짜기로 변모하고 만다. 그러면 온 부대 장병이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느라 며칠씩 삽질을 해야 했다. 이런 결과를 잘 아는지라 당직 근무를 설 때 폭우가 내리면 당장 부대원 몇 명을 이끌고 도로에 내려가 봐야 한다. 물론 삽을 들고.

반응 예상 후 정책 추진해야

이때 대단한 제방을 쌓으려는 것은 아니다. 도로에 불어난 물이 들어와 순식간에 물길에 되어 버리는 것은, 조그만 나뭇잎들이 흘러가다 얽혀 모여서 도로변 좁은 도랑의 물길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차적인 응급조치는 이런 나뭇잎 더미를 얼른 제거해 주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도로의 일

물길을 막기보다 터 줄 공리를

부를 가로질러 도랑을 낸 뒤 물길이나 큰 골짜기로 흐르도록 터 준다. 약간의 삽질이면 엄청난 피해와 고된 복구 '사역'을 미연에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 사교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임하는 정책에는 물길을 다루는 듯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보통 사람들이 이익을 좇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녹록치 않다. 투기금지지역으로 선정되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호재가 있는가' 도리어 관심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이면서 또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다. 사육 가치에 따른 수요 공급의 면면 따지는 것으로 부족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돈이 이익(교환가치 등)을 좇아 흐르고 물리는 것을 도외시키고서는 제대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사교육 현상은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서려는 것기에 막기 힘들다. 공교육이 잘 된다고 사교육이 없어질까? 공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교육을 대체하려는 것도 이상하며, 그렇게 잘할 수도 없다. 교육 문제는 사회 전체의 인력 양성과 총원 구조가 결부되어 있다. 당장은 과열을 완화시키려 노

력해야겠지만,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뜻밖에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에 봉착하는 것을 보면서 당구 게임이 연상되었다. 초보자는 눈앞에 보인 당구공의 움직임만 보고 플레이를 하다 낭패를 본다. 부딪힌 공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엉뚱한 공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특징은커녕 실점을 하기 십상이다. 당구 고수는 눈앞의 공간만 보지 않고 공의 예상 궤적과 다른 공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린다. 정책을 펴는 사람도 2차, 3차 연쇄 효과를 가능해 보고(정책 시뮬레이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각 주체의 예상되는 반응을 잘 헤아려 봐야 한다. 고수는 또한 한 번의 기회에 여러 점을 얻기 위해, 사각의 쿠션(당구대 안쪽의 공이 튕기는 면)을 이용한 이른바 '스리 쿠션' 같은 것을 구사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정책 동기가 선하다는 자신감에서 자칫 여러 다른 변수를 따져 보는데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한 의지만으로 부족하다. 최저임금제라는 가격하한제의 문제점은 이미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근로자의 생계에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겠다는 정부로서는 아이러니이다.

달레마적 상황도 잘 살피고

한편,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지불도 부담스러운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게 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의 부수적 결과였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이 국민경제에 주름을 더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달레마적 상황에서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리더의 문제의식이다. 경제학의 기본 과제인 '고용 안정'과 '물가안정'도 늘 두 마리 토끼처럼 달아난다. 리더는 우선 달레마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저울질하여 적절히 정책을 조제하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5년 임기의 정부로서는 시간은 적고 할 일은 많다. 하지만 조금하게 굴 것도 과욕을 부릴 것도 아니다. 당위적 규범성에 안주하기보다 이익 추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이익 충돌을 조장하고 이익 추구에 매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길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헛되어 물길을 막기보다 적절하게 터 줄 공리를 해야 한다.

교단에서



김진우
일신중 교감

공립 학교 교원은 대체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옮긴다. 그러니 교직에 들어와서 7, 8개 학교를 오가면 정년 가까이 된다. 떠난 학교에서는 가장 오래 머문 교감이었지만, 새로이 전근간 학교에서는 신참이다.

학교를 옮기면서 느끼는 감정이야 각자 다르지만 대체로 만족하기 보다는 아쉬움이 많다.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선배들이 제직 시절을 돌아보며 정리해 놓은 글이 있다.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데 딱 뽕뽕그리던 세 가지다. '잠을 잘, 배를 잘, 즐길 잘'이다. 그때 내가 참을 것을, 힘들이 했던 그에게 따뜻한 말한 것보다 더 건넨 것을.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는 말처럼 숨 막히는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좀 챙길 것을. 어찌 교단에서 퇴직한 분들만 이러한 후회를 하겠는가.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 모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임 뒤끝에도 그렇다. 나이 들어 가정생활에서도 느끼는 소외가 아닌가 싶다.

한편 새로 부임한 학교는 설레기도 하지만 낯설다. 학생이 바뀌고, 교직원도 다르고, 업무 처리 방법도 차이가 있다. 나름의 학교 문화가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전임지에서는' 이런 말이다. 추진할 행사를 두고 대화를 하거나, 회의 도중에 불쑥 나온다.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매너리즘을 깨는 신선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쓰는 경우가 많다. 전임지와 다르다거나, 안 했는데 왜 하느냐는 식이다. 이때부터 두 시간 동안 학교는 청소 송풍기, 예초기, 기계톱 소리로 요란하다. 이렇게 매일 교정이 정리되고 나면 8시경부터 교직원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한다. 학교는 낡았지만 맑끔하다. 학습

자료나 시험지 인쇄 등 기본 업무 외에 오래된 학교 누수 잡기, 막히거나 깨진 변기 교체, 수목 전지, 잡초 제거, 수도 전기 보수 공사, 페인트 칠, 학교 텃밭 가꾸기, 쓰레기 분류 등 학교의 모든 시설물이 그의 손에서 수리되고 빛난다. 근무하는 동안 외부 업체에 일을 맡긴 적이 없다. 손만 대면 월급보다 많은 학교 살림 수백만 원이 절약된다.

다른 한 번의 출근은 7시 40분이다. 출근하면 옥상 자물쇠, 창문 안전봉 등 학교 안전 시설을 둘러보고 노란 조끼를 입고 정문 옆 사거리로 나간다. 편도 1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가 빼곡하다. 곡예하듯 등교하는 학생들을 사발 받듯 안내한다. "저 학생은 등교는 할아버지가, 학교는 외할아버지가 해주고, 저 애는 거의 앞을 보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걷고, 매일 지적하는 학생은 누구이고..." 그의 수첩에는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의 등교가 체크되어 있다. 그리고 마우스에 '전임지'란 단어는 지우고, 이 두 분은 새기면서 아래 글을 남기고 훌연히 떠났다. "마음 한번 내려놓지 못하고 거품처럼 떠나갑니다. 신세만 지고 갑니다. 영원히 머물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기간제인 것을, 허물 많은 저로 인해 받은 상처, 좀 미워하시다가 어느 바람결에 용서 한 번 해 주셔요. 서정주의 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로 이별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섬섬하게./ 그러나 아조 섬섬지는 말고/ 좀 섬섬한 뜻만 하게 //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오그레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선배를 닮지 말고 시대를 닮아가라!

졌고, 보는 방식 또한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는 자식들을 부모의 방식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생길게 뻔하다. 민주화 이전에는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국민 윤리 공부를 강요하면서 국가 시키는 대로 처신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확립화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민 윤리 교육이 강조되지 않는 시대다. 내전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의 자녀들이 국제 보호 수용 시설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빨리 체득하는 것이 바로 '남의 의견 따르라'는 연구 결과와 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남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이 최선이란 사실을 알아차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니오(No)'란 반응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아이들이 말하는 '아니오'는 아이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나쁜 병균과 같은 것이며, '예'야말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매릴랜드주의 통제가 잘 되는 아이 존 리 말보(John Lee Malvo)와 그

의 아버지 존 앨런 무하마드(John Muhammad)는 2002년 10월 미국을 온통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이 부자는 조준 사격에 의한 '물지마 총격'으로 가정교사, 주부, 특정 시민을 살해했다. 이 사건에 동참한 아들 말보는 이 사건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통제가 잘 되는 아이,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고 한다.

이렇게 말 잘 듣고 순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 아이의 '예스'가 그의 운명을 망했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이가공할 연쇄 저격 사건이 그가 '통제가 너무 잘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히려 더욱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아이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통제하려는 양부에게 '예'만 할 줄 알았지 '아니오'는 할 줄을 몰랐다.

가끔씩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를 반복 주입한다. 내 아이가 나 같은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내 아이도 내게서 이 말을 듣고, 나도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나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말 잘 듣는 아이에게서 예견되는 부작용이 저리 클 수도 있는 것이라면 말 안 듣는 아이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다 해서 기뻐할 일만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해서 슬퍼할 일만도 아니다. '통제가 잘 되는 아이'의 비참한 운명을 지켜보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반항기의 내 아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요모조모 살펴보자. 적어도 내 아이가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 정도는 반문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자.

공중도덕에 고개를 끄덕이고 기존의 세상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깨고 바꾸는 역할을 담당케 하려면 고개를 옆으로 흔들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어른으로 키워야 한다. 통제가 길들여진 개인과 집단은 통제 받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제 당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불행한 일이다.

社說

밈그림 나온 한전공대 이젠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에너지 클러스터 중심 대학을 목표로, 연구·창업에서 최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지 규모와 학생 수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지만 개교 시기는 2022년 3월로 잡혔으며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한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30년 이내(2050년)에 세계 최고의 공대로 조성된다. 소수 정예 대학을 모토로 대학원은 6개 에너지 전공에 100명씩 600명, 학부 400명 등 모두 1000명+α(외국인 학생) 규모로 설립된다.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한 대우도 파격적이다. 기존 과학기술대학교보다 세 배 이상의 연봉(4억 원+α)을 보장하고 국내 대학의 두 배 수준으로 연구 시드 머

니(10억+α)도 제공한다. 융합·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창업 슈퍼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생 대 교수 비율을 10대 1로 구성하고 학비는 물론 기숙사도 무료로 운영한다.

설립 부지는 캠퍼스와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 시설을 포함해 총 12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전은 연내에 유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캠퍼스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설립 시기와 규모 및 입지 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밈그림이 제시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전은 물론 정치권과 지자체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정 과제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 위원 위촉 서둘러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달 안에

늦어졌다.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몫 4명 가운데 3명을 추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명은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다.

진상규명 조사위 구성은 국회 추천, 청와대 인사 검증, 대통령 임명 등을 거쳐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이 끝나더라도 조사 개시 선언까지는 계획 수립, 직권 채용, 사무처 설치 등에 2~3개월가량 필요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사흘 후인 14일부터 시행되지만 국회의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종 국회의장만 추천을 마쳤을 뿐 여야는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계엄군 발포, 행방불명자 압매장 장소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 규명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렵게 마련한 특별법 시행이 불과 사흘 남았는데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는 조사위원 추천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나치 독일은 1942년 10월 3일 새로운 액체 추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다. 이후 본래 '조립' (Aggregate)이라는 의미의 A-4 로켓명은 'V-2'로 바뀐다. V는 '보복 무기' (Vergeltung Swaffe)를 의미했다. 나치는 1944년 9월부터 종전 때까지 런던 등지로 V-2로켓 3220여 발을 발사한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V-2 로켓 기술은 승전국 미국과 소련의 차지가 됐다. 냉전이 시작되며 양국은 경쟁적으로 대형 로켓 엔진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소련이 먼저 선수를 쳤다. 'R-7' 로켓을 개발해 1957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궤도에 쏘 올렸고, 이어 1961년 4월에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호가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한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1958년 1월, '주피터(목성)-C' 로켓에 위성을 얹어 지구 궤도에 올렸다. 발사에 성공한 뒤 개발자 폰 브라운 박사는 "우리는 하늘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외쳤다. 치열한 미-소 우주 경쟁 속에서 미국은 '사턴(토성)-5'라는 대형 로켓 엔진을 개발하면서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각 나라에서 개발한 로켓 발사체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중국의 로켓 발사체는 '장정' (長征)이며 일본은 'H-2'로 명명됐다. 중국은 역사적인 대장정에, 일본은 연료로 사용자는 액체 수소 (Hydrogen)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근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이름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누리'로 선정됐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지난 2012년 1단 로켓 엔진으로 러시아산(양가라)을 사용해 발사한 '나로'와

미국은 1957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지구 궤도에 쏘 올렸고, 이어 1961년 4월에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호가 첫 우주 비행에 성공한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1958년 1월, '주피터(목성)-C' 로켓에 위성을 얹어 지구 궤도에 올렸다. 발사에 성공한 뒤 개발자 폰 브라운 박사는 "우리는 하늘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외쳤다. 치열한 미-소 우주 경쟁 속에서 미국은 '사턴(토성)-5'라는 대형 로켓 엔진을

개발하면서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각 나라에서 개발한 로켓 발사체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중국의 로켓 발사체는 '장정' (長征)이며 일본은 'H-2'로 명명됐다. 중국은 역사적인 대장정에, 일본은 연료로 사용자는 액체 수소 (Hydrogen)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근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이름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누리'로 선정됐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지난 2012년 1단 로켓 엔진으로 러시아산(양가라)을 사용해 발사한 '나로'와

짜를 이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독자 개발한 75t급 액체 연료 로켓 엔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를 10월 말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시험 발사는 신뢰성 높은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75t급 로켓 엔진 4기를 묶어 1단 엔진으로 사용하는 본 한국형 발사체는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우주 주권국으로 가는 첫발,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기원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우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